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7 SPRING

VOL.5



## WIN CLASS

### SPECIAL THEME

## 금에 관한 소고(小考)

### FINANCE CLASS

강(強)달리는 끝난 것인가?

### PREMIUM CLASS

개인고객그룹 배용덕 부행장





# WIN CLASS

## Premium Service

문화 예술 세미나  
문화 공연 행사  
공항 리무진 의전

## Portfolio Service

IBK금융그룹 복합금융 서비스  
WM전용상품  
리포팅 서비스

## Consulting Service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세무 컨설팅 서비스  
금융 컨설팅 서비스

오직 당신을 위해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과감하게-  
위기에선 섬세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WIN CLASS의  
승리투자공식이다.

승리를 향한  
자산관리 어프로치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7년 3월 10일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기획 WM사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Tel. 02-729-6423, 6419  
디자인·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경제·금융 정보 매거진입니다.

1.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SPECIAL SERIES</b>	6	<b>Special Theme ①</b> 금에 관한 소고(小考) 완만한 상승 기대	<b>PREMIUM CLASS</b>	32	<b>Hot People</b> 개인고객그룹 배용덕 부행장
	8	<b>Special Theme ②</b> 국내 시장금리의 향방은? 딜레마에 빠진 한국 기준금리		38	<b>인문학 미식회</b> 일상적 판단에서 벌어지는 실수의 심리학적 원인과 개선 방법
	14	<b>금융시장과 전망</b> 강(強)달라는 끝난 것인가?		40	<b>Brand New</b> 공유경제 선두주자를 이끌어 가다 에어비엔비와 우버
<b>FINANCE CLASS</b>	18	<b>ISSUE</b> 로보어드바이저란?	44	<b>클래식가이드</b> 봄날의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	
	21	<b>펀드상품</b>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2017 vol.5)	48	<b>건강레시피</b>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습관의 힘	
	22	<b>금융포커스</b> 2017년 꼭 챙겨야 할 개정세법 정리	50	<b>여행의 재발견</b> 호주 태즈메니아 캠퍼밴 여행	
	24	<b>메가트렌드</b> 2017년 주택시장 전망과 매입전략	58	<b>문화트렌드</b> 이유 있는 강연 프로그램	
			60	<b>Special Interview</b> 멜로디데이 예인	
			62	<b>Guide to Golf</b> 기본기의 중요성	
		66	<b>책 읽는 즐거움</b> 따스한 봄날에 읽는 문장들		

# WIN CLASS



##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자산관리 승리공식

- Consulting Service** |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자산관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세무 컨설팅 서비스, 금융 컨설팅 서비스
- Portfolio Service** | 고객님의 자산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 IBK금융그룹 복합금융 서비스, WM전용상품, 리포팅 서비스
- Premium Service** |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 예술 세미나, 문화 공연 행사, 공항 리무진 의전, 경조사 지원







# SPECIAL SERIES

---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금융 관련 시안들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 금에 관한 소고(小考) 완만한 상승 기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경제 매체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인 자산이 두 개 있다. 주식과 금(Gold)이다. 공화당 후보 시절 트럼프의 도발적인 언행으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과 안전자산인 금의 상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을 뒤엎고 주식은, 당선된 당일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곧바로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넘어 꾸준히 상승했다. 반대로 금은 당선 당일 큰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 후 하락 중이며 2016년 12월에는 1125달러/온스 수준까지 하락했다.

글. 김홍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차장

## 안전자산으로서의 금(Gold)과 달러

금(Gold)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안전 자산'이라는 특성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비교적 작는데, 이는 아무리 금값이 떨어져도 화폐처럼 휴지조각이 될 일은 없음을 뜻한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거래되는 화폐유통의 중심이었다. 이후 미국이 금과 달러를 바꿔주는 '태환(兌換)'을 약속하며 달러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 등으로 막대한 달러를 쏟아 붓기 위해 과도하게 달러를 발행함에 따라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자 주변국들이 달러를 금과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미국의 금 보유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1971년 금과 달러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닉슨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다. 하지만, 중동 석유거래의 기준통화 및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다.

## 금과 달러는 꼭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달러가 강세일 경우, 안전자산인 금을 보유할 유인이 적어진다. 보관의 번거로움과 이자도 주지 않는 금 가격의 약세는 당연하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경우, 달러로 거래가치가 정해지는 금을 비롯한 실물자산의 강세가 나타난다. 197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달러와 금 가격 사이에는 상관관계수가 부(-) 0.61로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과관계를 분석해보면 금 가격이 달러가치 변동에 대부분의 자산들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자산을 갖고 싶다면, 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금과 달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예외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는 전쟁 혹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쇼크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서이다. 이 시기에는 금과 달러는 함께 급등한다는 특징이 있다.

## 얼마만큼의 금을 보유하면 좋을까?

과연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한가? 회피 불가한 위기가 발생할 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나아가 부를 증진시킨 후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할 만큼 필요하다. 만약 경제가 대격변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수의 금을 소유하고 싶을 것이다. 주식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 속에서 수익을 낸다. 하지만 금은 경제의 불안정한 위기 속에서 수익을 낸다. 그래서 만약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금을 적게 소유하고 싶을 것이며, 경제가 약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금을 많이 소유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투자자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내도,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경험, 나이, 수입,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비중을 정해야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15%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총 투자자산에서 5% 미만의 금을 보유한다면, 투자라기보다는 아주 최소한의 안도, 혹은 자기만족에 가깝다. 주요 시장 붕괴 상황에서 자산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하자면 금 5%, 부동산 50%, 기타 주식형 자산이 45%인 상황에서 갑작스런 쇼크로 부동산과 주식이 30%~50% 하락했을 때 금이 얼마만큼 상승해야 헷지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5% 비중의 금이 700% 이상 올라야 헷지가 되는 것이다. 즉 고점에 있는 부동산 및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금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15% 비중의 금을 갖고 있다면 200% 상승 시 헷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2017년 전망과 금

전통적인 투자조언은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과 채권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인데,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아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고, 초저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은 가격이 부풀려진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17년 미국은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금리인상이 진행될수록 채권은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러가치의 측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금의 생산(채굴)과 수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기 호조, 유럽 및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세로 판단해 보건데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위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국의 달러화 강세 정도로 볼 때 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리 상승국면에서는 금 가격이 당분간 약세 여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현 가격대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는 금 중 약 75%가 광산 채굴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채굴비용을 고려한 생산손익분기점은 대략 1,000~1,100달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100달러 이하 가격에서는 가격의 하방지지가 된다는 말로 실제로 2015년도에 1,100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한 후 빠르게 반등한 바 있다.

올해 금리변동성이 안정된다면 금은 다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중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역시 금의 가치가 올라가며 상승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WIN CLASS



## 국내 시장금리의 향방은? 딜레마에 빠진 한국 기준금리

2017년은 투자자들에게 어느 해보다도 큰 변화가 발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기나긴 양적완화 정책을 종결하고 금리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통화긴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금리는 물론이고,  
환율, 주식시장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 문형수 IBK기업은행 WM사업부 과장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환율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은 시장금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예금, 채권과 같은 금리형 자산은 0.1%의 금리차이로도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한다.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기준금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선불리 장기상품에 투자해서 금리손해를 보기가 싫다는 생각이다. 0.1% 금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보통 기준금리는 해당 국가의 시장금리의 향방을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높을 경우 이를 잡기 위해 실행된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은 2.3%에 불과하고 대내외 기관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 전망 또한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국내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 같은 상

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유통돼 경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외화의 유출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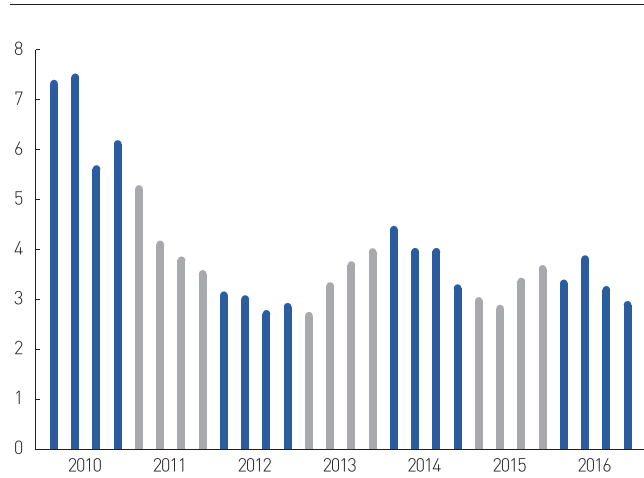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0.5%~0.75%로 인상했을 때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었던 것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차이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금리매력이 부각된 미국으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또한 금리를 선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로 들 수 있다. 작년 한 해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총동원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다. 대출금리를 싸게 공급한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고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유의미하게 상승했지만, 담보대출 또한 시장에서 위험신호가 나올 만큼 증가했다. '금리를 내리자니 부채가 늘어나고, 올리자니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금리정책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국내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유통돼 경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외화의 유출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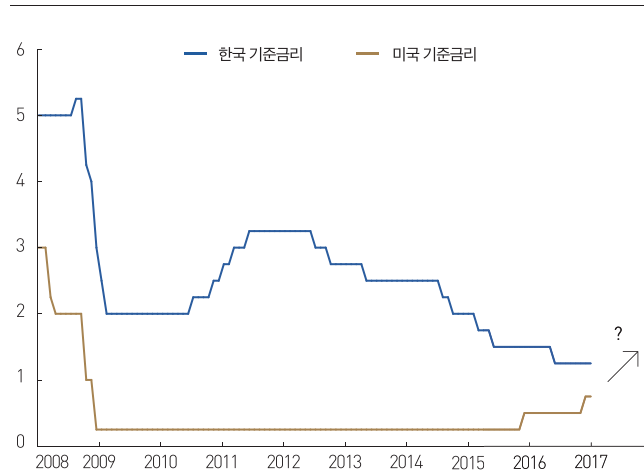


국내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미국 기준금리 추이 비교



자료: Bloomberg

**그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다면 1.00~1.25%가 되어 한국 기준금리인 1.25%와 같은 수준이 된다. 이 상황이 되면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금리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미국보다 위험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한국이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외화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된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먼저 금리상승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의 상승에 무게를 둔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

저축성보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공시이율은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도 변하게 된다. 한 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이율이 정해진 예금과 달리 공시이율은 매월 갱신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수익률 적용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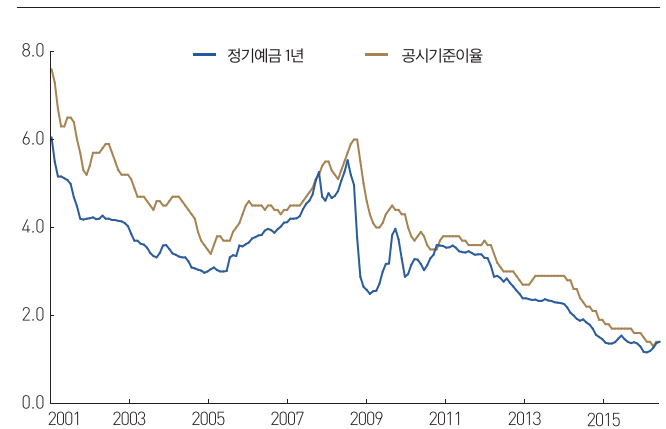
**단기 채권형 상품 & 채권만기 보유**

장기 채권형 펀드는 금리 인상기에 피해야 할 상품이다. 매수시기에 비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가 되면 확정 수익을 받는 예금이나 채권과 달리 채권형 펀드가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것은 만기가 다른 여러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펀드 안의 채권이 일부 만기가 되어 받는 원금과 이자를 새로운 채권에 투자하여 사실상 잔여만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평가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보통 '듀레이션'으로 표현되는 잔여평균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잔여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밖에 투자자격 등급의 회사채를 매수하여 만기보유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펀드와 편입한 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만기매칭형 펀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매수시점에 만기보유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수준에 만족한다면 일반 시중금리형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시장금리 연동 + 비과세 혜택 =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축성보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공시이율은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도 변하게 된다. 한 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이율이 정해진 예금과 달리 공시이율은 매월 갱신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수익률 적용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10년 간 계약을 유지하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

정기예금&저축보험 공시이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보험개발원/정기예금1년(15.4%과세후 기준), 공시기준이율(연금저축보험 기준)

득세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유리하다. 다만 올해 4월부터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가 축소되므로 변경되는 한도금액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미국 시니어론(뱅크론) 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국내 시장금리 대신 인상 확률이 높은 미국 금리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시니어론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시니어론은 'Libor금리 + 가산금리'의 변동금리 구조로 금리 인상기에 추가수익을 노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니어론 펀드는 과거 몇 년 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채권의 대부분이 0.75%~1.75%의 최저보장수준(Floor)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장수준 금리를 보장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이 수준을 넘지 못하면 추가 수익이 없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시니어론 vs 하이일드 특징 비교**

구분	시니어론	하이일드
신용등급	BBB- 미만	BBB- 미만
담보	있음	없음
자본구조순위	선순위	후순위
지급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만기	5~7년	7~10년
회수율	평균 71%	평균 44%

시니어론은 하이일드 채권과 채무기업의 신용등급이 비슷하지만 선순위이고 담보채권이라는 점에서 하이일드 채권보다 안전성이 높다. 시니어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신경쓰이는 거액 자산가라면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ETF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시니어론 또한 ETF로 만들어져 있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거래가 활발한 종목으로는 BKLN(인베스코 운용)과 SRLN(블랙스톤 운용) 등이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환차익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22%)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이라면 이론의 여지없이 공모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공모펀드 또한 시장에서 찾기 힘들었지만 최근 시니어론 투자 붐을 타고 신규 공모펀드가 여러 개 출시되고 있다. 보통 직접 시니어론에 투자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ETF에 투자하여 금리인상기에 추가수익을 추구한다. WIN CLASS





# FINANCE CLASS

재테크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금융·경제 정보를 알아봅니다.





## 강(強)달러는 끝난 것인가?

작년 4분기 빠르게 가치가 상승했던 달러화가 올해 들어 소강상태에 놓였다. 이로 인해 강달러를 예상하고 달러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다. 향후 달러화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글.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

### 2017년 달러화 전망

올해 4월까지의 달러화의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된 계절성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988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데 과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는 한국과 대만, 중국의 경우 4월과 10월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올해의 경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이후 첫 환율보고서 발표인 만큼 보고서 발표가 압박 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전까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환율보고서 발표 전후로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한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보고서 이벤트의 소멸 후 환율은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금리차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러화지수를 구성하는 주요국들과의 금리 차는 확대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인상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연말까지로 자산매입 기간을 연장했고, 유럽내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은 멀었다는 판단이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의 공간이 낮은 금리와 양적완화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올해 안에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6월 미국에서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면 4월부터는 금리 차가 다시 환율에 빠르게 반영되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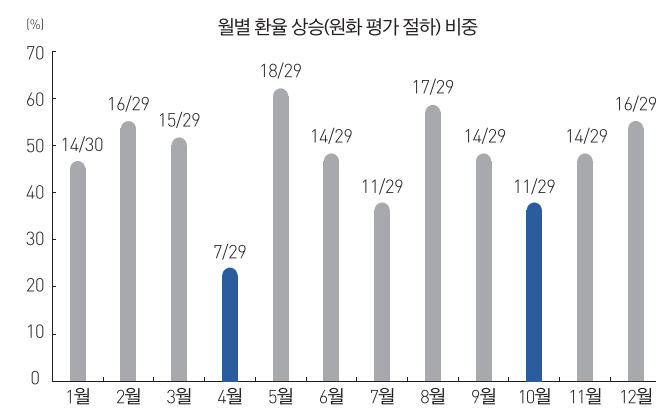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과 좁혀지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달러화 강세를 전망하는 이유이다. 금리 차 못지 않게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경제성장률 차이도 환율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장 모멘텀은 트럼프 정책 효과로 인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달러화 강세 전망의 이유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 달러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미 달러화가 중요한 유럽 통화의 대체재로 작용한다. 유럽 관련 리스크는 3월 브렉시트 협상 시작, 3월 네덜란드 총선, 4~5월 프랑스 대선, 7월 대규모 그리스 국채 만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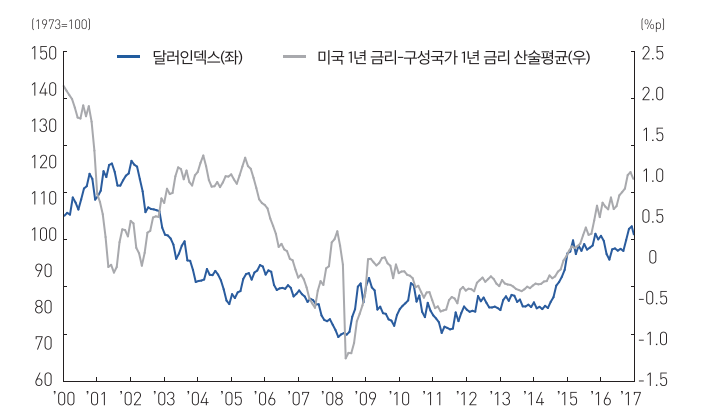
달러화 강세가 재차 진행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균형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질실효환율이 과거 장기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화 가치가 위쪽이건 아래쪽이건 큰 폭으로 움직일 동력이 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해도 원/달러 환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불확실성 등이 크게 부각되면 1,200원선을 돌파했다가 안정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국면별로 나눠 보면, 4월까지의 미 환율보고서 작성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1,100원선 하향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4월 이후에는 반대로 달러 강세 요인이 부각되며 1,200원선의 상향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1988년 이후 월별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비중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과 달러화지수 구성국가 간의 금리 차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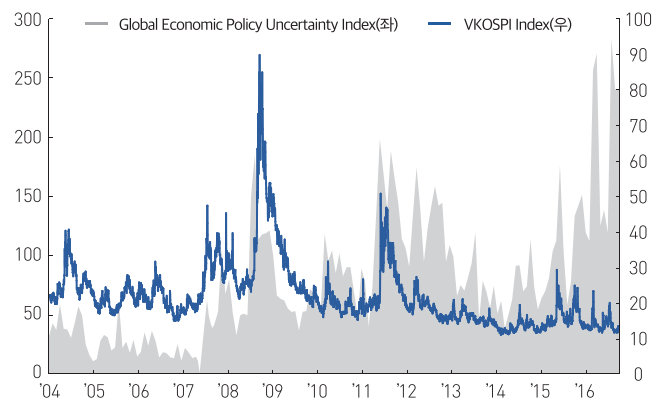
### 증시 변동성 확대에 주의

대통령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약 보름만에 제시했던 취임 100일 청사진에서처럼 미국이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취임 후 사흘 만에 캐나다, 멕시코와의 다자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이미 대통령 후보 때부터의 공약이었지만 실제 취임 이후의 이와 같은 발 빠른 보호무역주의 행보는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 및 감세와 같은 부양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미룬 채 보호무역과 관련된 정책 행보만 이어가면서 취임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취임 이후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강세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하향 안정시켜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는 향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벌 EPU 급등은 향후 KOSPI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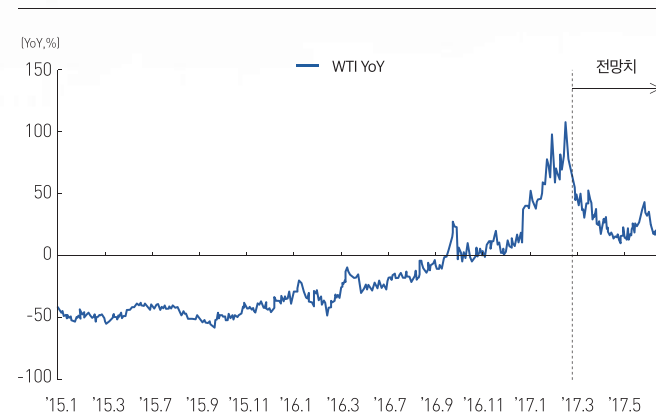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역시 글로벌 증시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며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월 이후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내증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3월 영국의 브렉시트 및 4월 프랑스 대선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이어지며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을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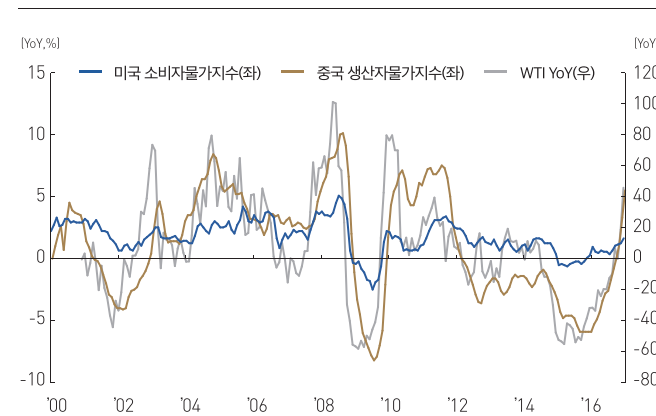


국제유가 전년동기대비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국제유가 전년동기대비 추이와 물가의 상관관계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국제유가의 회복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간 OPEC의 감산 기대감과 감산 합의 이후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그 동안 국제유가를 끌어올렸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의 생산 재개와 이미 높아진 원유 재고량 레벨은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을 막고 있다. 당사는 올해 국제유가 전망(분기 평균)을 1분기 54달러, 2분기 56달러, 3분기 53달러, 4분기 51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치를 적용해보면 국제유가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2월 초 이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국제유가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둔화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중국의 생산자물가 역시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단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최근 증시의 상승이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즉 단기적으로 국내증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3월 영국의 브렉시트(리스본조약 50조 발동) 및 4월 프랑스 대선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이어지며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2017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여전히 신흥국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낙폭을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WIN CLASS



# 로보어드바이저란?

쓴 웃음과 함께 흑돌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대국을 알파고에게 내준 이세돌을 보면서 대중들은 인공지능(AI)의 무서움을 실감했다. 기존의 컴퓨터는 빠른 계산력, 정보 수집력 등 능률적인 측면에서 강력했지만, 이제는 인간 고유 영역인 생각과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로봇이 금융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인식과 함께 금융권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 로봇(Robot)이 자문역할(Advisor)을 수행하는 한정적인 해석에서 대중들은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생각할 테니, 훨씬 뛰어난 수익률을 고객에게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를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영시켰다.

글. 파운트(주)



## 로보어드바이저,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서비스이다. 본질은 자산관리다. 그것도 자산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둔 서비스다.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관리를 일반 대중들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층을 넓혔다는 것이 로보어드바이저에 기대해야 할 이유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도화 된 IT기술과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등의 금융이론이 결합되어 컴퓨터가 금융자문(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휴먼 어드바이저(Human Advisor)의 역할을 로봇(Robot)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봇(Robot)이 어드바이저(Advisor) 역할을 하는 것이며,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별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금융상품을 매매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자산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고객들은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 로보어드바이저로 누릴 수 있는 이점들

첫 번째로 저렴한 수수료(Low Cost)와 소액투자금액으로도 자산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는 휴먼 어드바이저가 관리할 수 있는 고객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다. 자산관리의 본질이 고객별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고객이 많을 수록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자산관리 서비스는 일반 고객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가 주요 고객이 됐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고객이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이 되어도, 고객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적은 수수료와 소액투자금액으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한다. 사람이 하는 투자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없다.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투자에 임해, 잘못된 판단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케인즈(Keynes)도 인간 본성에 불안정성이 존재해 대부분의 결정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반면에, 로보어드바이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다. 감정이 없어 잘못된 판단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오직 데이터 정보를 분석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도화 된 IT기술과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등의 금융이론이 결합되어 컴퓨터가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에 대한 투명성이다. 미국의 자문업계는 투자자들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재가 문제시 되어 왔다.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 리서치 업체인 Cerulli Associates의 조사(2012)에 따르면, 보수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한 질문에 64%의 고객이 보수 지급 방식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보수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황 가운데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과 자산관리 자체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특히, 보수 구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정해진 업무 시간에 맞춰 휴먼 어드바이저에게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자산관리 현황 및 어떻게 리밸런싱이 이뤄졌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장점과 더불어, 간편한 회원가입과 온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을 통한 투자자들의 쉬운 접근성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요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회와 코스콤 공동 주관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www.ratestbed.kr)가 시행됐다. 총 27개의 금융기관과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률 뿐 아니라 합리성, 규율적합성, 안정성, 보안성 등에서 적절하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작된 포트폴리오 운용 심사에서 최근 2월 14일까지 3가지 투자유형별(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수익률 테스트 부문에서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며, 파운드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IBK기업은행이 테스트베드에 참가한 시중 은행 중 1등을 기록해 공식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잠재적인 경쟁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로보어드바이저가 나아가야 할 길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온라인 비대면계좌 허용 등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IT기술이 접목된 자산관리 서비스이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자산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핵심 서비스이다.

투자자들이 금융위기를 겪은 후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닥뜨리면서 금융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배경은 '높은 수익률 추구'에 있지 않았다. 저렴한 수수료와 더불어 자산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 예일대 투자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엘리스(Charles D. Ellis)는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라.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해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보다 리스크 관리만큼은 컴퓨터가 더 나올 수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은 이전보다 더욱 스마트하고 편안해졌다. 이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스마트하게 투자하고(Invest) 편안(Relax)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WIN CLASS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 및 전망

국내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2000년대부터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수요가 점차 증대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금융투자회사들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중부유층으로 고객기반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IT의 발달에 힘입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접근성도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등의 도입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와 일반 대중들도 접근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 해 9월부터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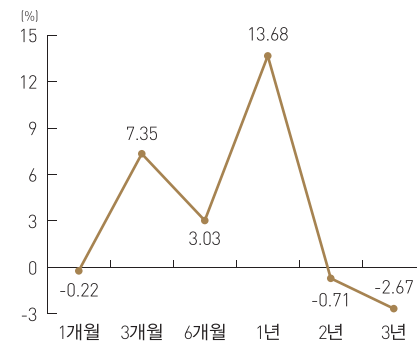
### 김영민 (주) 파운트 CEO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Boston Consulting Group(BCG)



### 국내주식형

### 한국밸류 10년 투자밸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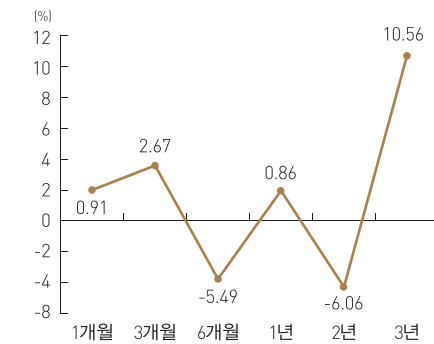
- 대형가치주와 중소형가치주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
-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가치주의 높은 투자비중으로 양호한 성과 전망

#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자료: IBK기업은행 개인상품부 투신상품팀 (펀드 스펙트럼, 2월 16일 기준)

###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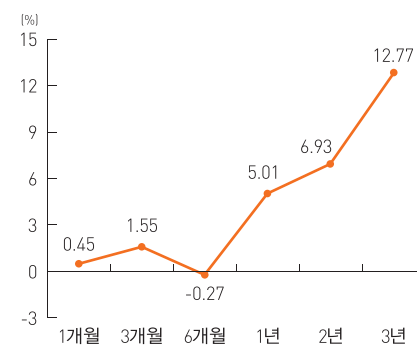
### KB중소형주포커스



- 중소형가치주 발굴 투자
- 작년 하반기 코스닥시장 침체로 최근 성과는 부진하나 향후 코스닥시장의 회복을 고려한 역발상 투자로 접근

### 해외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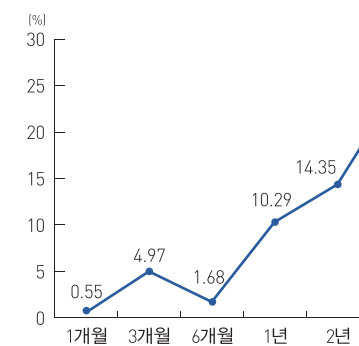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 전세계 채권에 고른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 추구
- 높은 신흥국채/회사채 비중으로 인해 향후 신흥국 경기안정기에 수익률 강세 예상

### 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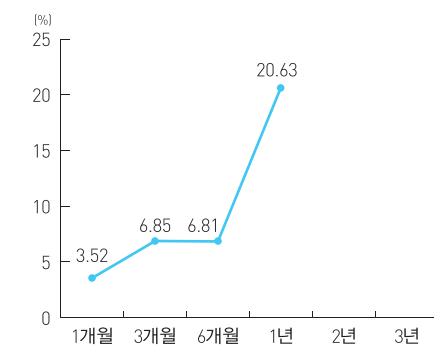
###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 고배당주, 콜옵션 매도전략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기복 없는 수익률 확보
- 국내 기업들의 현금배당을 상향, 양호한 실적전망으로 인해 양호한 펀드 성과흐름 유지될 것

### 해외주식형

### IBK포춘중국고배당



- 세계적인 경제뉴스인 Fortune China가 발표하는 Fortune China 500기업 중에서 고배당이 기대되는 기업에 선별투자
- 고배당성향의 중국금융, 국영기업들의 저평가 매력과 실적개선으로 중국증시 상승세 지속될 전망





## 2017년 꼭 챙겨야 할 개정세법 정리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세법규정이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이 예고 되었던 법안이 관련업계의 이익제기 등으로 인해 적용시기가 연장되는 등 다른 때보다 세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연초였다.

초저금리 시대 '세테크'는 중요한 '재테크' 방법 중 하나다.

2017년 꼭 챙겨야 할 개정세법 내용을 통해 절세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글. 김훈찬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소액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소득세법 §12)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비과세 적용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에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당해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간주임대로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기존에는 85㎡ 이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60㎡이하로 하향 조정 되었다. 소액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 당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17년부터 소액임대주택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세법개정 내용은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우려를 낳은 사항이기도 하다. 2년간의 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향후 당해 세금을 고려한 실효수익이 어떠한지를 따져보고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2017년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0%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이는 1996년 이후 20여 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원안에는 3억 초과 10억 이하는 41%, 10억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제안되었으나 논의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5억 초과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 5억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4%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과세표준 200억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22%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의제 규정 개정

지난해 세법개정시 이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닌 2016년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최초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 역시 2017년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소득세법 §16)

현재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가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월납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에 제한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일시납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월납식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당초 개정 시에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2017년 2월 3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는 변경규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비과세 한도축소에 대한 업계의 이익제기와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는 올해 4월 1일 계약체결분부터로 연장되었다.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한도 축소로 이제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방안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아직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여유자금의 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해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고려해 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현재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기준은 동일하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로 판단하도록 확대될 예정인 바, 주식의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당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의 육성을 목적으로 상장주식 양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켰던 정책적 목적의 당위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점차적으로 대주주 범위를 확대시켜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기조를 참조하여 주식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증세법 §69)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었으나, 현재 전자자료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산변동 상황 파악이 용이해지고 과세 당국의 납세자 자진신고 의존도가 떨어진 만큼 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신고세액공제 10%를 2017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7%를 적용하도록 하향 조정하였다.



## 2017년 주택시장 전망과 매입전략

올해도 벌써 한 해의 1/4이 지났다. 2016년과는 달리 주택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이전과는 달리 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변화의 기점은 2016년 11월 3일 발표된 11.3 대책 (실수요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곧이어 발표된 11.24 대책(8.25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대책) 이후라 할 수 있다. 정책발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과 2017년 한 해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글. 김연화 IBK기업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가





## 2016년도 부동산 주요대책

### 11.3 부동산대책 배경 및 주요내용

2016년 주택가격은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며 또한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과열 현상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선별적, 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바로 11.3 부동산대책이다.

### 2016년 11월 3일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요약

구분	대상지역	제한내용
1. 분양권 전매제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 과천시 서울 강남4구 외 + 성남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 ▶ 1년 6개월
2. 1순위 청약제한	조정대상지역	1) 비세대주 2)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해당침 제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해당침 제한 대상 추가
4. 계약금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중도금대출조건을 계약금 5% ▶ 10% 납부
5. 기타 제한	조정대상지역	1)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2) 청약일정 분리 실시 3) 청약가점제 실시 4) 다운계약서 작성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실시 5) 최초분양권도 실거래신고의무(공급자와 수분양자 공동신고의무)

### 조정대상지역 및 규제내용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	택지유형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변경 전	변경 후	1순위 제한	대당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시 통장사용	청약일정분리	가점제 자율시행유보
서울특별시	강남4구	민간	6개월	소유권 이전등기시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해당침 제한주택과 해당침 제한 대상자에 포함	(계약금 납부) 분양가 5% ▼ 분양가 10%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의무	1일차 당해 2일차 기타로 1순위 접수 분리	청약가점제 40% 유지
	강남4구 외	공공	1~2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경기도	과천시	민간	6개월	민간 1년 6개월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해당침 제한주택과 해당침 제한 대상자에 포함	(계약금 납부) 분양가 5% ▼ 분양가 10%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의무	1일차 당해 2일차 기타로 1순위 접수 분리	청약가점제 40% 유지
		공동	1~2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공공	6개월	소유권 이전등기시							
	공공	1~2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경기도	성남시	민간	6개월	민간 1년 6개월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해당침 제한주택과 해당침 제한 대상자에 포함	(계약금 납부) 분양가 5% ▼ 분양가 10%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의무	1일차 당해 2일차 기타로 1순위 접수 분리	청약가점제 40% 유지
		공공	1~2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 (동탄2에 한함)	공공 (민간택지 제외)	1~2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해당침 제한주택과 해당침 제한 대상자에 포함	(계약금 납부) 분양가 5% ▼ 분양가 10%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의무	1일차 당해 2일차 기타로 1순위 접수 분리	청약가점제 40% 유지
		공공 (민간택지 제외)	1~2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 (공공택지 제외)	-	-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해당침 제한주택과 해당침 제한 대상자에 포함	(계약금 납부) 분양가 5% ▼ 분양가 10%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의무	1일차 당해 2일차 기타로 1순위 접수 분리	청약가점제 40% 유지
		공공 (민간택지 제외)	1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 (현행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GB해체 50% 이상 공공택지 : 시세 85% 이상 1년, 70~85% 미만 2년, 70% 미만 3년 / 그 외 공공택지 : 1년

### 11.24 가계부채 배경 및 주요내용

한편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25일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서민·취약계층 관리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11.24 대책(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발표한다.

11.24 대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집단 대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 2016년 11월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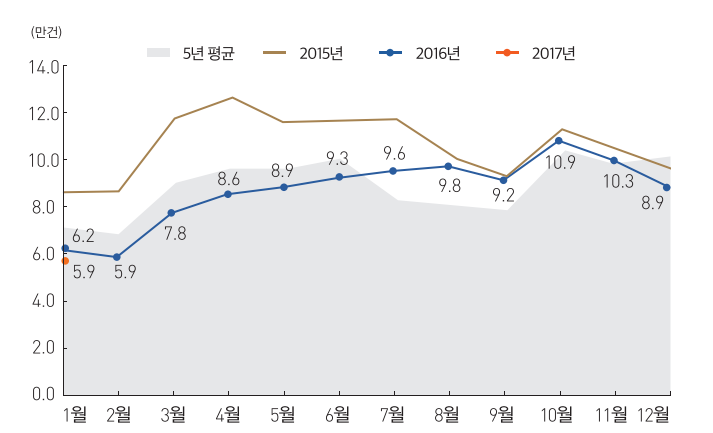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대상 상품 :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 대상 기관 :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세부 내용 : 1. 중병 소득 우선 활용 2. 잔금 대출 - 비거치 분할 상환 3. 금리 인상 가능성 감안한 상환 능력 대비 부채 비중 80% 이상이면 고정 금리 대출 의무화	2017년 1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대상 기관 :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세부 내용 : 1. 농어민에게 맞는 소득 증빙 방식 마련 2.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고소득 활용 대출, 담보가치의 60% 이상 대출 -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상환	2017년 1분기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DSR) 도입	대상 기관 : 전 금융권 세부 내용 : 1.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참고 지표 2. 필요 시 자율규제 전환 검토	2016년 12월



### 2017년 1/4분기 주택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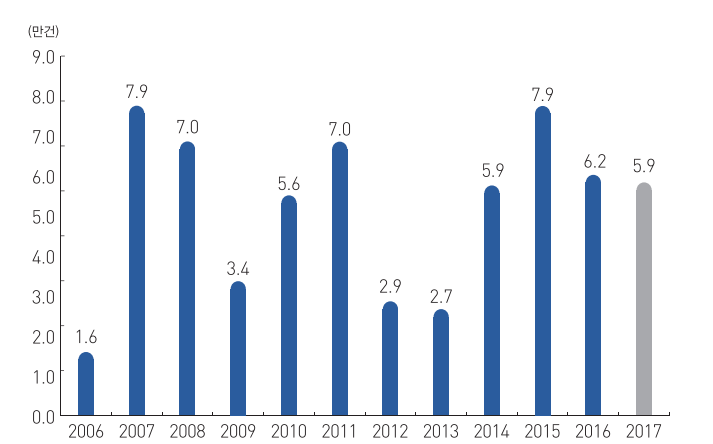
2017년 1월 현재 주택매매거래량은 58,539건으로 이는 2012~2016년 5년 간 평균 1월 거래량인 51,324건에 비해서는 14.1%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수치다. 이는 계절적 비수기에 대출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관망세와 설 연휴 등의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무엇보다 11.3 대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래량(26,042건)은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 지방(32,497건)은 0.5% 감소하였으며, 유형별로는 2017년 1월 아파트 거래량(38,086건)은 전년동월 대비 4.1%, 연립·다세대(11,120건)는 10.4%, 단독·다가구 주택(9,333건)은 9.0%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보조자료, 2017년 2월 14일.

### 연도별 1월 주택매매 거래량





## 2017년 주택시장 전망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2016년 11월,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17년도에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는 0.8% 하락하고 입주 물량 급증으로 전세기도 1.0%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보험세(0%)에 머물고 지방은 1.5%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이 '연간 집값 상승률'을 마이너스 수치로 제시한 것은 8년 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지구와 경기 외곽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전체적인 가격 등락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지방 주택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금리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 2017년 주택가격 전망

(단위: 전기말 대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2017년 <sup>e)</sup>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매매	전국	1.7	3.5	0.0	0.1	0.2	0.0	0.4	-0.8
	수도권	1.5	4.4	0.0	0.3	0.4	0.2	1.0	0.0
전세	전국	3.4	4.8	0.4	0.3	0.2	0.1	1.0	-1.0

주: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2016년 4분기와 2017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 e)는 연구원의 추정치 / CERIK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년 12월, 주택시장 전망에서 2017년 전국 매매가격은 수도권의 미미한 상승 영향으로 보험(0%)을 유지하고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국지적 역전세 가능성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0.4% 상승하는 안정된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 2017년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단위: 전년말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sup>e)</sup>	
			1~10월	연간	1~10월	연간 <sup>e)</sup>		
매매	전국	0.3	1.7	3.0	3.5	0.5	0.7	0.0
	수도권	-1.1	1.5	3.8	4.4	1.0	1.3	0.5
전세	전국	4.7	3.4	4.2	4.9	1.1	1.3	0.4
	수도권	6.2	4.8	6.1	7.1	1.7	2.1	0.7

주: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 / e)는 연구원의 추정치

전망했다. 2017년도 주택시장의 영향 변수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주택 공급량 및 입주물량 등이며 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매개 변수는 대출규제로 보고 있다.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017년 1월 '2016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7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2%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약보합세로 전환할 것으로 본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도권은 -0.2%, 지방은 -0.4%로 지방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전세시장은 매매시장 약보합세와 전세 신규입주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안정세를 유지, 주택전세가격은 0.3%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했다.

### 최근 주택시장 변동 및 2017년 주택시장 전망치 요약

구분	동향		2017년 전망
	2015년	2016년	
주택 매매가격 변동(전국) (수도권/지방)	3.51% (4.37%/2.73%)	0.71% (1.32%/0.17%)	-0.2% (-0.2%/-0.4%)
주택 전세가격 변동(전국) (수도권/지방)	4.85% (7.14%/2.79%)	1.32% (2.04%/0.67%)	0.3% (0.4%/0.0%)
주택매매거래량 변동(전국)	19.0% 119.4만건	-11.6% 105.5만건	-7.1% 98.0만건

\*주택거래량은 2016년 12월분 미확정으로 추정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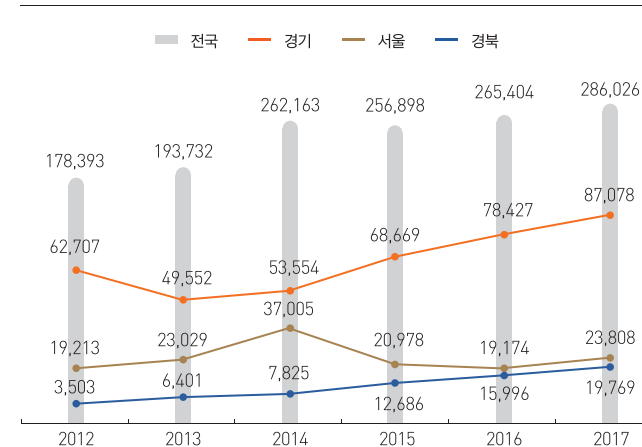


## 향후 주택시장 가격변수

### 주택 입주물량

2017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주복·임대 포함)는 총 629곳으로, 38만 2,741가구이다. 이는 최대기록인 2008년(32만 336가구)보다 19.4% 많으며 2016년(28만 8,568가구)보다는 32.6% (9만 4,173가구)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화성 동탄2신도시(1만 2,450가구), 김포 한강신도시(7,048가구), 시흥 배곧신도시(7,294가구), 수원 호매실지구(7,515가구), 부천 옥길지구(4,841가구), 세종시(1만 5,432가구) 등이 있다. 2017년 주택 입주시장 특징은 전체 입주물량의 44.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입주단지 244곳, 전체 세대수는 17만 290가구로 대부분이 대기 중이다.

###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



자료: 부동산114(2015~2017년 예정물량 포함) 단위: 가구

### 정부 주택정책

앞서 설명했듯 2016년 11.3 대책의 주 내용은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의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및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하여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청약 시 일부 조정지역(강남3구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감소하거나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급속히 냉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잔금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인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벚꽃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동산대책이 바뀔 수 있으나 이 역시 지금의 대책연장선에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한국은행이 2017년 2월 말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95조 7,531억원으로 1년 사이 11.2%(130조 8,579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로 이는 영국(87.6%), 미국(78.8%), 일본(65.9%), 프랑스(56.7%), 독일(53.4%) 등 주요국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2016년 8.25 대책의 영향력으로 2016년 7월까지 하락하던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혹여나 미국의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매입을 위한 투자자세

앞서 3군데 부동산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전망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공급 및 입주물량이 넉넉한데 비해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그리고 청약규제 등으로 주택수요는 위축됨에 따라 2017년 주택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가격상승 폭이 상당히 제약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약시장은 분양권전매 규제, 1순위 요건 강화 등으로 단기투자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집단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다 입주물량과 미분양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실거주 목적의 청약자에게는 오히려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주변시세 대비하여 분양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향후 아파트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개발 호재 지역인지, 교통 및 업무단지 등 대기 매수자가 풍부한지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한편 주택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에도 매우 넉넉한 편이다. 반면 매수자들은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이 길어야 1년에다 원리금을 균등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택환경 여건에서 매수자는 절대 주택매입 시기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수를 이해하고 매입희망 지역, 단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 매수시세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투자목적 명확히 하되 지역 중개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등은 주택매입의 합리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모든 일은, 아는 것만큼 그리고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결실을 맺음을 잊지 말자. WIN CLASS







# 진심갈력(盡心竭力)으로 새로운 IBK기업은행을 꿈꾸다

개인고객그룹  
배용덕 부행장

2017년 1월, IBK기업은행은 새로운 부행장 4명을 임명했다. 부행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 속에서 개인고객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된 배용덕 부행장은 1980년에 입행, 그야말로 뿔속까지 기업은행을 위한, 기업은행에 의한 삶을 살아온 기업은행의 산증인이다. 과연 새로운 부행장은 개인고객그룹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고객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 직접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방문수







### 새로운 개인고객그룹을 위한 첫걸음

1980년대의 은행 문턱은 참으로 높았다. 반들반들한 윤기 나는 바닥이며 먼지 한 톨 없는 깔끔한 공간은 웬지 흥발자국을 선뜻 내딛기가 어려웠다. 일반인들은 물론 기업인들에게도 칼 같이 다려 입은 양복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은행원들은 어렵기만 한 상대였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어느 누가 그를 다시 찾지 않을 수 있을까. 배용덕 부행장은 바로 그런 은행원이었다. 대기업 직원보다 은행원을 훨씬 높이 '쳐주던' 그 시절, 하물며 국책은행이었던 기업은행에 입행함으로써 첫 번째 꿈을 이룬 그는 타고난 온화함과 겸손함, 반듯한 성품으로 상사의 신임을 받았고 한번 만난 고객은 반드시 그를 다시 찾게 하는 마법을 부리는 특별한 은행원으로 살아왔다. 그랬던 그가 입행 37년만에 부행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를 아는 술한 은행원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일견 당연한 것이었다.

개인그룹 부행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두 달을 향해 가는 시점, 배용덕 부행장은 작은 축하 화분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승진의 기쁨보다는 자리가 주는 엄중한 사명감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업은행만큼 ‘기업’의 비중이 크지만 ‘개

인’ 고객도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그룹을 꾸려가고 성장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배용덕 부행장은 마주한 이를 절로 무장 해제 시키는 특유의 함박 미소를 짓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치고는 굉장히 밝은 얼굴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용덕 부행장의 미소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그룹을 살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게 기우였습니다. 훌륭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로 따지면 선장이고, 연주회로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내 위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니 무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배용덕 부행장이 다시 한 번 미소를 짓는다.

### 보다 업그레이드 된 WM서비스

지난 설 연휴 직전, 개인고객그룹 직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 부서를 일일이 돌면서 건넌, “일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다오라”는 부행장의 인사를 직접 받은 것이다. 이는 배용덕 부행장의 경영철학과도 그대로 잇닿아 있는 부분이다.

“위치에 따라 행원이 해야 할 일, 차장이 해야 할 일, 지점장이 해





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일했으니깐 당신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마인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일을 맡기되 직원들이 잘할 수 있게끔 탄탄한 무대를 만들고 좋은 음악과 신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배용덕 부행장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며 신앙처럼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진리다. 마음으로부터어나오는 미소를 짓는 직원의 얼굴이 고객을 부르고, 다시 그 고객을 찾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그는 ‘생일파티’, 다 함께 소통하는 ‘호프데이’ 등을 통해 직원들을 행복하게 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배용덕 부행장의 남다른 행보에 개인고객그룹 직원들의 사기가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다.

개인고객그룹 내 VIP고객을 담당하는 WM사업부의 목표 또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업은행 WM사업의 자산관리 원칙은 고객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배용덕 부행장의 지휘 하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PB브랜드인 ‘WIN CLASS’의 WM서비스를 통해 금융, 세무, 부동산 등 수준 높은 윈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아 현재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충, 배치 중인데 이에 WM사업은 매년 새로운 기록과 성과를 내고 있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 내는 진심어린 컨설팅 상담이니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용덕 부행장은 향후 고객 자산관리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 개개인의 투자성향, 연령, 재산수준, 가족관계에 적합한 일대일 전문 종합자산관리 통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품 가입 후 만기까지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윈스톱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까지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자산관리서비스 전용 플랫폼 구축을 해 더 많은 고객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진심의 힘, 소통의 힘, 책의 힘

배용덕 부행장은 개인고객그룹의 목표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책은행으로서 아직도 기업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오해를 종종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위 1,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시중은행과 겨루어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포부이다.

실제로 배용덕 부행장은 10년 전, 처음으로 지점장으로 나간 분당 수내역 지점에 꽤나 근사한 카페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언론에까지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손님에게 자판기 커피를 내미는 게 최고의 대접이었던 시절, 비싼 커피머신을 이용해 아메리카노며 에스프레소를 대접했으니 모두의 이목이 쏠린 건 당연했던 것.

“당시에는 직원들이 모두 예산이 없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사비까지 지출했지요. 당시 제 생각은 은행 거래를 하든 하지 않든 일단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거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든 지나가다가 약속장소로 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고 실제로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 카페 개업 기념이라면서 몇 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뱅크로 불렸던 배용덕 부행장이 내부에서는 물론 경쟁 은행에서도 주목 받았던 대표적인 마케팅 사례였다. 그렇다면 그는 이 같은 생각을 어디서 얻었던 것일까?

“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책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디어는 책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은행에는 독서통신이나 동아리 모임 등 책을 읽도록 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우리 1만 3천명 직원들에게 모두 책을 읽게 하면 안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권씩만 읽어도 5만 권이 넘는데 그건 그만큼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사를 만들었던 교수님께서서는 ‘책은 우리 몸의 DNA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책 읽는 은행’을 기업은행의 문화로 만들 수 있다면 책을 통해 선진국이 된 다수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선진은행’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용덕 부행장은 자신의 핸드폰에 ‘진심갈력(盡心竭力)’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적어 놓고 다닌다. 이는 ‘어디든지 마음을 다해 간다’, 즉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딜 가든 자신이 진심을 다한다면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내부고객은 물론 외부고객까지 진정성으로 아우르며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권위와 지시 대신 융합과 소통으로 개인고객그룹의 사내 위상을 새롭게 다지고 IBK기업은행을 찾아오는 개인고객들에게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배용덕 부행장. 그가 지휘할 IBK기업은행 개인고객그룹이라는 함선이 과연 어디까지 다다를지, 모두의 기대가 뜨겁다.

“우리 고객과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WIN CLASS

진심갈력(盡心竭力),  
이는 ‘어디든지 마음을 다해 간다’,  
즉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딜 가든 자신이  
진심을 다한다면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내부고객은 물론  
외부고객까지 진정성으로  
아우르며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 일상적 판단에서 벌어지는 실수의 심리학적 원인과 개선 방법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존재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정보처리에 필요한 정신적 자원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여러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합리적 인간이 일상에서 일으키는 실수의 심리학적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절약적 사고,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다

인간이 환경에 대한 지각과 평가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통제한다면 정신과정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사고 특성, 즉 절약적으로 사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절약적 사고는 여러 요리를 범할 수 있지만, 인지적 한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절약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 못지않게 생존에 유용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지적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으면서 생존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시에 절약적 사고는 판단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많다.

## 절약적 사고의 사례들

행동경제학에서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득과 손실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면 100%의 확률로 90만원을 벌 수 있는 경우와 90%의 확률로 100만원을 벌 수 있는 경우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택하기 쉽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경우 확보한 이익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모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100%의 확률로 90만원을 손해 볼 수 있

는 경우와 90%의 확률로 1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는 경우 중 사람들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하기 쉽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확정된 손실을 기피하기 위해 모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보를 제시하는 순서도 우리에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 가격은 같고 질은 다른 세 종류의 스웨터를 질이 높은 순서로 ABC, 질이 낮은 순서로 XYZ의 두 개 상품 세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 소비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XYZ 상품 세트를 먼저 보여준 후 X-A 스웨터 쌍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X 상품과 A상품의 비교에서 A상품이 질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먼저 제시한 X상품을 더 많이 선택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제품의 질보다는 제시 순서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교양과목의 주 교재가 전공서적만큼이나 무거운 책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무게는 곧 진중함이나 진지함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우리가 팬을 치아로 물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띠는 반면 입술로 물면 화가 난 것과 같은 표정을 짓게 된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은 한 집단의 참가자에게는 팬을 치아로 물고 만화를 보

실수를 피하려면  
정보의 충분한 수집과  
그 정보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하게  
의사결정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팬을 입술로 물고 동일한 만화를 보게 했다. 그 결과, 팬을 치아로 물어 미소 짓는 모습을 한 집단이 그 만화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절약적 사고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홍길동은 외향적이며 총명한 27세의 남성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사회양극화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미시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홍길동의 관한 다음 진술 중 더 그럴듯한 것은 어느 것인가? (a) 홍길동은 은행원이다. (b) 홍길동은 은행원이며 적극적인 사회운동가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b)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은행원보다는 사회운동가를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진술이 첫 번째 진술보다 확률적으로 더 그럴듯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은행원일 가능성은 그 사람이 은행원이면서 사회운동가일 가능성보다 확률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이 실제보다 더 정확하다고 지각하는 경향 즉 과잉확신의 편향을 가지고 있다. 집을 나올 때 분명히 열쇠를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찾지 못해서 당황하거나 모임에서 상대방이 분명 이런 말을 했다고 확인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법정에서 사람들은 자신 없어하는 목격자보다는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목격자의 말을 더 잘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목격자의 확신이나 자신감이 그들의 진술의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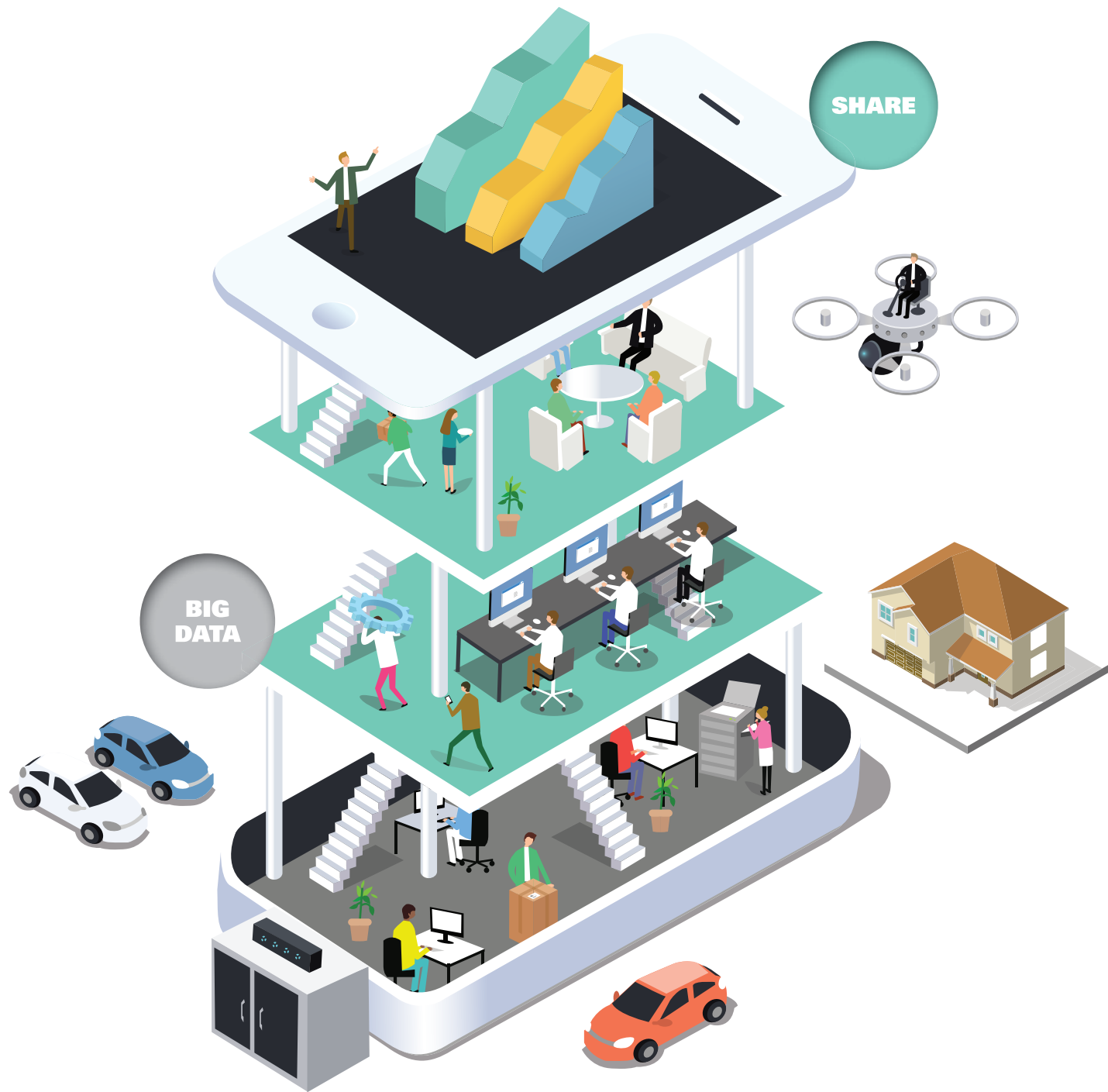
## 판단의 실수를 줄이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사고 없이 자동적으로 판단한다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려면 정보의 충분한 수집과 그 정보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하게 의사결정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있기 쉽다. 가령,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고민하는 상태는 결코 유쾌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결정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일단 결정하고 나면 더 나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추구하고나 창조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정 이전에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최선의 판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WIN CLASS



# 공유경제 선두주자를 이끌어 가다 에어비엔비와 우버

글. 현문학 매일경제 중부분부장



## 4차 산업혁명의 꽃, 우버와 에어비엔비

4차 산업혁명 바람과 함께 우버(Uber)와 에어비엔비(Airbnb)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전통적 장점이다. 빅 데이터라는 첨단 엔진까지 탑재했기 때문이다. 빈 방과 여행 수요를 연결시키는 에어비엔비나 지리위치를 기반으로 이동 수요와 빈 차량을 연결하는 우버 모두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실시간으로 유효한 시장을 제공함은 물론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까지 매긴다. 다시 말해 파편처럼 흩어졌던 시간 가치와 유휴 자산에 대한 활용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이나 차량은 물론 금융과 인력지원 TV 분야 등에서 창업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지원을 받으며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추세다.

신형 공유경제에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는 신뢰가 꼽힌다. 빅 데이터로 신용을 증명하고 신뢰가 중개인 역할이나 규칙을 정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 놓아도 공급자와 수요자와 플랫폼이 각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논리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나 소비관도 공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PW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물을 소유하는 것을 사회 지위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두 명 중 하나 꼴이다. 특히 18세에서 24세까지 연령층에서는 자동차나 집을 소유하는 것을 신분 상징으로 생각 안하는 비율이 더 높다. 비싼 집을 소유하기보다 마음대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비싼 호텔은 부담된다. 빈방이 있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현지 문화 체험도 하며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

##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에어비엔비

여행에 사고라는 개념이 더해지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소비자 체험을 근거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각 영역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에어비엔비의 성공 사례는 공유경제의 현주소를 잘 대변한다. 창업한 지 8년 만에 191개국에 300만개의 숙박 시설을 확보한 에어비엔비는 하루 42만 5,000명의 투숙객을 받는다. 전 세계 힐튼호텔 체인을 이용하는 손님 수보다 22%나 많은 수치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은 없지만 기업가치도 300억 달러로 힐튼 호텔의 277억 달러를 앞지른 지 오래다.

흑자로 전환한 에어비엔비의 주요 수익원은 수수료다. 손님들에게는 6~12%씩 수수료를 받고 건물주에게는 3%를 받는다. 여행객 가이드 서비스를 추가한 11월 이후 매출은 80% 이상 증가한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건물 임대기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거둔 업적으로는 괄목할 만하다. 투자를 받고 보유한 자금도 31억 달러나 된다.

최근 식당예약 스타트업인 레시(Resy)도 사들이고 모바일 결제 회사인 틸트(Tilt)도 인수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로스앤젤레스 오피엄극장에서 지난해 말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는 매출의 80%는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환영받는 지역은 런던 파리 뉴욕이고 앞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중국을 꼽았다. 가맹점이 7만 5,000개로 늘고 매년 3배씩 성장하기 때문이다.



파편처럼 흩어졌던 시간 가치와 유휴 자산에 대한 활용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이나 차량은 물론 금융과 인력지원 TV 분야 등에서 창업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지원을 받으며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추세다.



“여행이란 어디를 가는 개념이 아니다.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핵심가치로 만들겠다”며 여행 플랫폼을 통해 여행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가서 전통적인 한국 나염을 배우거나, LA에서 악단과 함께 행진을 하거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별자리를 촬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에어비엔비

브라이언 체스키는 여행 민주화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과거 여행은 여행사가 주관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주관하는 여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여행이란 어디를 가는 개념이 아니다.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핵심가치로 만들겠다”며 여행 플랫폼을 통해 여행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가서 전통적인 한국 나염을 배우거나, LA에서 악단과 함께 행진을 하거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별자리를 촬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12개 도시에서 시행중인 이 서비스를 상하이 등 50개 도시로 늘려나갈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회원인 건물주나 이용객들의 추천을 통한다는 점이다. 지능형 노선 안내 서비스라든지 모임이나 핸드폰 언어지원 등 서비스도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핵심 경쟁력인 숙박도 진화시키려하고 있다고 강조한 체스키는 “여행업은 마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쉽다. 숙박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며 어디서 자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여행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점 예약이나 항공이나 차량 예약 쇼핑 등 여러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물론 새로운 업종인 공유경제의 특성상 순풍만 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사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유럽 등지에서도 각종 규제조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는 에어비엔비를 겨냥해 단기 임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어졌다. 위반하면 7,500달러의 벌금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업주에게 60일 이내만 영업할 수 있게 했고 싱가포르에서는 6개월 내 단기임대를 아예 금지했다. 도시 생활 방식이 바뀌고 안전문제 등을 내세운 규제다.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과 전통적인 기존 호텔에 대한 영향 등을 내세워 신형 비즈니스를 견제하려는 조치가 줄을 잇는다. 또 장애인 규정을 준수할 것도 요구하는가 하면 책임 보험도 들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용객들이 제기하는 분쟁과 소송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다.

### 더 높은 비약을 준비하다, 우버

우버도 에어비엔비와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5년 사이 글로벌 서비스 도시를 250개로 늘렸고 회사 가치도 텔타항공이나 유나이티드항공보다 올라갔다.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버는 아직까지도 흑자로 전환하지는 못한 상태로 보인다. 미국 서도 경쟁이 심한 데다 야심차게 진출한 중국서는 저가 경쟁으로



매년 10억 달러씩 손실을 보다가 작년에는 아에 디디(滴滴)에 사업을 넘겼다. 우버는 그러나 대규모 투자자본을 확보하면서 자산 가치를 올리고 있다. 창업 후 받은 투자 액수만도 100억 달러 이상이다. 트리바스 칼라닉(Travis Kalanick) 사장은 작년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서 6개월 간 우버는 수백 개 도시에서 이익을 실현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었다고 강조했다. 우버의 경쟁력 핵심은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동가격조절 기능이다. 경제학 원리로 정당한 시장가격인 셈이다.

칼라닉 사장은 우버의 수익구조와 경영 상황에 대해 5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운전자들과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온라인 시장을 개설한 것이다. 우버에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다. 개인택시를 하던 영업용 택시를 하던 우버에 응할 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운전자다. 두 번째 우버의 소득은 대부분 운전자 몫이다. 80%를 운전자가 가져가고 우버에는 이익금 중 일부가 들어오는 저수익 구조다. 그나마 카드 결제시스템 투자나 벌금이나 분쟁 비용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저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전에는 고급 차종을 주로 활용한 고급 이미지가 강했으나 저가서비스인 우버 엑스(UberX) 서비스 이후에는 4차레나 가격을 낮추는 등 저가전략을 추진 중이다. 네 번째는 말이 많은 빅데이터에 의한 자율가격이다. 비중

은 10% 정도다. 주로 주말이나 성탄절 등 공휴일에 많이 이용한다. 수급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그래도 우버의 가격은 일반 택시보다 40% 싸다고 주장한다. 호텔이나 항공사와 렌터카회사에서 성수기에 가격 올리고 비수기에 내리는 가격 시스템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우버는 무한정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가격 투명성도 우버의 무기다. 가격 결정 시스템은 고객이 수궁할 수 있도록 공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우버는 시장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고객들끼리 거래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분쟁이 생겨도 우버는 빠지고 고객끼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부터 억제 장벽에 부딪치고 연달아 부딪치고 있다. 타이베이에서도 지난 2월 초 운행중지 당한 데 앞서 프랑스와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광고물에 대해 기소를 당했다. 우버는 오히려 강자에게 시장이 물리는 마태효과를 강하게 믿는 듯하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가장 번잡한 뉴욕에서 1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기존 업자들이나 정부의 규제와의 충돌은 신흥 산업이라는 특성 상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우버와 에어비엔비로 대표하는 공유경제가 전통 산업의 영역을 세차게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WIN CLASS







## 봄날의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문장이지만 클래식 음악은 특히나 이 글귀를 대입하기에 참으로 적절하다. 흔히 지루하다, 졸리다, 어렵다로 대변되는 클래식음악이지만 ‘알고 보면’ 이만큼 다이내믹하고 즐거우며 몰입하기 좋은 장르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올 봄,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펴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편견을 한번 내려놓아보자. 어쩌면 당신 앞에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클래식음악은 일단 접근성이 쉽지 않은 음악이다. 가요나 팝 음악이 3~4분 안팎의 노래를 들려주는 데 반해 클래식 음악은 길게는 2시간부터 짧게는 수십 분까지 만만치 않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두 클래식음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아이들이 대개 공부를 잘한다”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높은 집중력을 요하고, 어떤 작곡가의 음악을 들어도 똑같이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에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중들에게 곧잘 교양과 비례한다는 확신을 주기도 하는 클래식 음악은 사실 ‘덕후’로 표현되는 마니아들이 많은 장르이기도 하다. 한 곡을 가지고 빚어내는 수많은 지휘자들과 연주자들, 시대에 따라 쏟아지는 다양한 음반, 라이브 공연 등을 파고들고자면 그 깊이도 넓이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막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려고 결심한 사람들, 클래식 음악에 호기심은 있지만 어떻게 그 세계에 들어서야 할지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간혹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부터 말하자면 “No”이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작곡가들, 지휘자, 연주자, 헛갈리는 곡명까지 자격증 공부하듯 할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즐거움이 아닌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공부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재미와 감동을 기반으로 한 동기부여는 클래식 음악에서도 매우 절대적이다.

### 모차르트로 더 가깝게 만나는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을 두고 천정이 높은 음악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클래식 음악은 일상과 매우 가까운, 일상에 혼재되어 있는 음악이다. 음악감독들이 선별해낸 클래식 음악들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광고 음악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덕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클래식 음악 입문에서 가장 필요한 ‘좋다’, ‘친숙하다’라는 느낌은 비교적 쉽게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에 가장 많이 차용되는 작곡가는 누구일까? 그 숫자를 헤아려본 사람은 없겠지만 아마도 모차르트가 그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흔히 천재음악가라고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56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4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시작해 5살 때부터 작곡을 했으며, 8살 무렵 이미 교향곡을 작곡한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곳곳을 누비는 것으로 딱 차 있었는데 6살 때 오스트리아 궁전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 걸다가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준 공주 마리 앙투와네트에게 청혼했던 일화는 사실인 듯 아닌 듯 구전되어 내려오기도 한다. 아버지는 영재로 자라 17세가 된 모차르트를 빈의 궁정악단에 취직시키고자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모차르트는 고향의 궁정 음악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과 구애에 대한 실패, 궁정 음악가로서 윗사람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모차르트는 빈으로 떠났고 여기서 그는 수많은 주옥같은 작품들을 써내려갔다. 청혼을 거절당했던 여자의 여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이후 모차르트는 1791년 사망할 때까지 35년간 누구보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영혼과 정신은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작곡가로 남아있다.

### 세월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음악

사실 인간 모차르트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다. 어린 때는 천재로 칭송 받았고 훗날 궁정 음악가가 됐지만 그의 서열은 시종이나 요리사보다 낮았고 무엇보다 모든 음악적 취향을 귀족에게 속박 당하는 음악가의 삶은 불행했다. 하지만 난청을 앓았던 귀, 늘어만 가는 빛, 자

식을 잃은 아픔까지도 함께 겪고 있던 그가 남긴 작품들은 청아하고 아름다웠으며 맑고 밝았다. 작곡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받거나 함몰되기 마련인 음악이 개인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자아내면서 그의 음악은 '천상의 소리', '천재의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모차르트의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알려진 것만 대략 600여 곡. 세 달만에 내리 작곡한 교향곡 39번, 40번, 41번은 그의 3대 후기교향곡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미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는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들로 손꼽힌다. 그 외에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호른 협주곡 등은 주옥같은 선율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영상과 결합된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자. 영상미와 음악이 만나 최고조로 올라가는 감정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기 마련이며 그 배경음악에 대한 호기심 또한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듣다보면 "아하~ 그게 모차르트 곡이었어?" 하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만나게 되니 그런 순서로 모차르트 음악(클래식 음악)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면 된다.

### 몰랐던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

모차르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화 〈아마테우스〉이다. 1985년 개봉하고 2015년에 재개봉한 〈아마테우스〉는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녹여

낸 작품이다.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엉뚱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살리에리의 애증을 그려낸 이 작품은 제57회 아카데미 8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그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고 모차르트에 대한 이미지를 대중화들에게 고착화한 작품이기도 한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음악 역시 풍성하다. 영화 속에는 오페라 '미술피리', '돈조반니', '후궁탈주'의 장면을 비롯 '피아노 협주곡 20번', '터키행진곡', '레퀴엠',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모차르트의 심리와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준다.

이외에도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피아노협주곡 21번 2악장', 〈에이스 벤츄라〉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뮤직 1악장',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스타트랙〉의 '현악 4중주 사냥 4악장', 〈트루먼쇼〉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터키행진곡', 〈쇼생크 탈출〉의 '피가로의 결혼-편지 이중창' 등이 유명하다. 영화와 클래식 음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모차르트는 봄과 참 잘 어울리는 작곡가이다. 봄의 등실 떠오르는 가벼움과 따스함, 설레임, 처연함, 아른대는 햇빛의 이미지는 그가 쓴 많은 작품의 느낌과 닮아있고 창작자들은 모차르트의 그 느낌을 수많은 작품에서 차용했다.

클래식이 어려운 당신, 올 봄에는 모차르트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에 성큼 다가서보면 어떨까. 어쩌면 그 동안 까맣게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WIN CLASS

## 클래식 공연 관람 TIP

1

### 공연을 보기 전에 예습하기

작곡가나 연주, 해당 곡에 대해 미리 공부하자. 유튜브에서 미리 해당 음악을 찾아 듣고 가는 것도 좋다. 바빠서 예습을 못했다면 공연 당일, 프로그램 책자를 구입해서 꼼꼼히 읽어볼 것. 작곡자, 연주가, 곡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들어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2

### 박수와 앵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클래식 음악에는 악장이 있다. 악장은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등에 모여 있는 여러 개의 작은 곡들을 말하는데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면 지휘자나 연주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곡이 완전히 끝난 뒤에 박수를 쳐야 한다. 곡을 잘 모를 경우 다른 관람객들을 따라 치는 게 안전하다. 오페라의 경우 성악가들의 노래가 끝나면 바로 박수를 친다. 이후 감동 받은 만큼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 된다. 박수가 끝없이 이어지다보면 지휘자나 연주자가 준비한 앵콜곡을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

보통 오페라에서는 성별에 따라 환호성이 구별된다. 여자성악가에게는 브라바, 남자성악가에게는 브라보, 혼성듀엣일 경우에는 브라비라고 외치는 것. 잘하나 못하나 박수에 후한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제대로 노래나 연주를 하지 못할 경우 환호 대신 침묵이나 구두를 던지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습관의 힘 잘 자고 적게 먹고 크게 웃어라

많은 현대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거나 값 비싼 체육관에서 숨쉬 좋은 강사의 교육을 받기도 한다.

건강을 돌보는 길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

글: 박수현 기자(KBS PD, 스포츠취재부, 문화부 기자)

### 숙면의 기술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숙면이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비슷한 건강 상태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의 쥐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 결과, 실험 5일 만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그룹에서 쥐 한 마리가 사망했다. 잠을 자지 못한 쥐는 체중은 늘어났는데,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증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저하됐기 때문이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항산화 효소는 크게 떨어지고 남성호르몬 또한 크게 감소해, 생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수면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를 '수면위상지연증후군'으로 부르는데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닌 질병으로 본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생체시계가 있고 그곳에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맞춰져 있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맞춘 우리 뇌의 기본 설정(디폴트 세팅)이다.

우리 뇌 속의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는 잠을 잘 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멜라토닌의 분비는 오전과 낮 동안 해를 보는 시간과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을 쬐는 것이 숙면에 좋다. 오전, 오후 각각 30분 이상 햇빛을 보고, 밤 늦은 시간을 피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스스로 조절하는 숙면의 기본 기술이다. 취침 2시간 전,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장수의 비결

####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



조선 왕조 역대 임금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은 83세까지 살았던 21대 임금, 영조다. 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인 점을 감안 하면 대단한 장수를 누렸다. 영조가 다른 왕들과 가장 달랐던 점은 차별화 된 식습관이었다고 한다. 왕의 밥상인 수라상은 밥과 국을 비롯한 12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12첩 반상을 기본으로 했는데, 영조는 반찬수를 반으로 줄였고, 하루 다섯 번씩 먹던 수라도 세 번으로 줄였다고 한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열량을 30% 줄인 음식을 제공하고, 20년간 경과를 지켜봤다. 열량을 제한한 원숭이는 일단 외모에 있어서도 털이 풍성하고, 윤기가 있었고 생존율 또한 30% 가량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질병발생률도 훨씬 낮았는데 당뇨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암 발생률이 50% 정도 줄었으며 노화에 따른 뇌 위축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장수 연구의 권위자인 박상철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만난 600여 명의 장수 노인 중, 비만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 얼마나 줄여 먹어야할까? 정답은 개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먹는 양을 줄이는 만큼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음식을 줄이고 야채와 채소 견과류 등 건강식을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체로 현대인들이 먹는 것에서 20~30% 정도의 열량을 줄일 것을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소식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단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우선 밥을 잡곡이나 현미로 바꾸고, 그릇의 3분의 1 정도만 덜어내 보자. 오래 씹으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다 보면, 소식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 웃으면 복이 와요?

#### 웃으면 건강해진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웃는 집 대문으로는 온갖 복이 들어온다는 옛 말이 여러 부분에서 현대 과학으로 검증되고 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력을 높여 암과 같은 질병에 맞서고 호르몬을 깨워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데, 바로 자연치유력이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웃음이다.

유쾌한 웃음은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와 싸우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 한 시간 동안 코미디 영화를 시청한 그룹의 NK세포 활성도가 61%나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국제 의학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웃으면 심장 기능도 좋아진다. 비밀은 소리를 내며, 숨을 내뿜는 웃음의 동작에 있다. 뱃속으로부터 뿜쳐 나오는 웃음은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으로 이어지고 횡격막의 상하운동이 증강되면서 폐속 깊은 곳까지 산소와 혈액을 공급한다. 심장박동도 빨라져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 몸 전체로 퍼지게 한다. 깊은 숨으로 많은 산소가 공급된 혈액은 혈압을 낮추고 나아가 심혈관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다. 온 몸을 쓰며 박장대소 할 경우 평상시에 비해 여섯 배가량의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웃음이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는 뜻이다.

조금 더 웃자. 때와 장소는 가려야하겠지만 가능한 시간 날 때 마다 웃자. 사소해보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WIN CLASS



# 지구가 만들어 놓은 비밀의 정원을 탐하다

태즈메니아는 호주의 모든 풍경을 모아 놓은 곳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정령이 나올 것만 같은 깊은 숲,  
거친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황무지,  
세계 최고의 와인 등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태즈메니아.  
캠퍼밴을 타고 낙원을 여행했다.

글·사진 최갑수 여행작가



# Australia



**캠퍼밴, 태즈메니아를 여행하는 가장 멋진 방법**

태즈메니아는 호주 남단에 자리한 섬이다. 빅토리아 주와 배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호주 본토에서 240km 떨어져 있다. 섬의 크기는 남북 296km, 동서 315km로 남한의 3분의 2 크기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는 50만명 남짓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태즈메이니아 주도 호바트와 제2의 도시 론세스턴(전체 수정함-한 번만 표시)에 거주한다. 이곳을 제외하면 도시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작은 마을 수준이다. 섬의 동부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해안들이 이어지고 중앙 지역은 다소 척박한 환경이다. 서부는 거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거주하는 인구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태즈메이니아는 전체 면적의 40% 가량이 국립공원과 각종 보호구역이다. 울창한 숲이 매력적인 마운틴 필드 국립공원, 깎아지른 절벽과 해안이 아름다운 머라이어 아일랜드 국립공원, 태즈메이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프라이시넷 국립공원, 환상적인 도브 호수의 비경을 품고 있는 크레이들 마운틴 국립공원 등이 대표적인 국립공원이다. 태즈메이니아 여행의 반은 이들 국립공원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즈메이니아는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캠핑 여행지이기도 하다.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 위치한 캠핑장만 180여 개가 넘는다. 시설 캠핑장도 70여 개나 된다. 모든 마을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에 캠핑장이 있다고 보면 된다. 태즈메이니아 캠핑 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최소한 2주일 정도의 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요 여행지를 대부분 돌아볼 수 있고

2~3일 정도는 트레킹이나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다. 일정은 아름다운 항구도시 호바트를 중심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동부 해안을 따라 올라가 론세스턴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짜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 코스를 따라 캠퍼밴을 몰면 태즈메이니아의 위대한 자연과 세련된 도시, 한적한 전원 마을, 와이너리 등을 모두 돌아볼 수 있다.

호바트에서 곧장 북서쪽으로 달리면 마운틴 필드 국립공원에 도착한다. 1916년 태즈메이니아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산 정상부에는 습지가 형성되어 있고 깊은 계곡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숨어 있다. 마운틴 필드가 보여주는 가장 멋진 비경은 러셀 폭포다. 여행자 안내소에서 20분만 걸어가면 높이 40m의 장대한 폭포를 만날 수 있다. 녹색의 삼림 가운데로 하얀 커튼을 드리운 것처럼 2단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냥 신비롭다. 유칼립투스 거목들이 가득한 숲도 있다. 거목은 열 사람이 팔 벌려 안아도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듯 거대한 나무 아래 서면 경이감마저 든다. 나무 꼭대기에서는 알 수 없는 새소리가 들리고 짙은 이끼로 뒤덮인 뿌리는 원시의 생명력으로 꿈틀댄다. 나무 뒤에서 당장이라도 정령이 걸어 나올 것만 같다.

**끝없이 이어지는 태즈메이니아의 비경**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는 태즈메이니아를 여행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다. 캠퍼밴은 마운틴 필드 국립공원을 나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 프라이시넷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프라이시넷은 태즈메이니아 바다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태즈메이





니아의 모든 해변을 통틀어 물빛이 가장 아름답다는 와인글라스 베이(Wineglass Bay)가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와인글라스 베이를 즐기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는 와인글라스 베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행자가 이 코스를 선택한다. 주차장에서 40분 정도 수고를 들이면 오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망대를 지나 와인글라스 베이까지 가서 해변을 따라 거니는 것. 젊은 여행자들이나 백패커들이 이 방법을 즐긴다. 마지막은 에이모스 산 정상에서 와인글라스 베이를 바라보는 것. 에이모스 산의 높이는 해발 455m에 불과하지만 정상 부근이 아주 가파르다. 게다가 대부분의 코스에 슬래브 바위가 있어 트레킹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산행 경험이 풍부하다면 한번쯤 도전해볼 만하다.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는 와인글라스 베이의 조망은 탄성이 나올 만큼 압권이다.



와인글라스 베이라는 이름은 한때 고래 사냥이 한창일 무렵 고래의 피가 바닷물을 붉게 물들인 모습이 마치 잔에 담긴 붉은 와인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태즈메이니아는 1840년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항구를 폐쇄했다.

프라이시벳에서 이틀을 머문 후 머라이어 섬으로 향했다. 트리아 부나라는 작은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40분쯤 가면 도착하는 섬이다. 여행자들이 이 섬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퍼실 클리프라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해변의 빛깔이 신비로운 페인트드 클리프를 보기 위해서다. 퍼실 클리프는 거센 파도에 부서진 장대한 해변이 장관이며, 페인트드 클리프는 해질 무렵에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신비롭다.

머라이어 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비쉬노와 세인트헬렌스라는 작은 도시를 지나 '베이 오브 파이어스(Bay of Fires)'라는

해변에 닿았다. 고운 백사장과 투명한 바다가 장장 29km에 걸쳐 펼쳐진 이 해변은 2005년 여행잡지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가 꼽은 세계 10대 해변 가운데 한 곳이다. 눈부시게 흰 해변과 붉은 바위가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낸다.

베이 오브 파이어스를 지나면 태즈메이니아 캠핑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든다. 태즈메이니아 북부의 론세스턴을 지나 두 시간을 달리면 태즈메이니아 여행의 하이라이트 크레이들 마운틴 국립공원에 도착한다. 크레이들 국립공원에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오버랜드 트랙(Overland Track)'이 있기 때문. 세계 3대 트레일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65km의 이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트레커들이 줄을 선다. 트랙을 완주하는 데는 보통 6일이 걸린다. 트레일 상에 위치한 산장







(Hut)에 숙박하며 트레킹을 하는데 여덟 개의 산장을 이용한 스케줄 짜기, 텐트, 침낭 등의 숙영 도구와 6일간의 식량 마련하기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 낭만 가득한 항구도시 호바트와 론세스턴

태즈메이니아에는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두 곳이 있다. 태즈메이니아 남부에 자리한 호바트와 북부에 자리한 론세스턴이다. 호바트는 태즈메이니아 최대의 도시다. 태즈메이니아는 남한의 3분의 2 크기인 작지 않은 섬이지만 인구는 고작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호바트에 몰려 산다.

호바트 시내에는 한나절이면 속속들이 돌아볼 수 있다. 변화가인 살라망가 마켓, 18세기 영국 조지아풍의 집들이 모여 있는 배터리 포인트, 수백 척의 요트와 피시 앤 칩스가 맛있는 캐주얼 레스토랑이 몰려 있는 프랭클린 워프, 웰링턴 전망대 등이 가볼 만하다. 웰링턴 산에는 꼭 올라가보시길. 호바트 최고의 전망대다. 호바트 시내에서 B64 도로를 따라 12km를 오르면 웰링턴 산 정상이다. 바다와 도심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물론 가벼운 트레킹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

호바트가 태즈메이니아 남부를 대표한다면 론세스턴은 태즈메이니아 북부를 대표한다. 시내에는 19세기에 지어진 빅토리아풍의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중세 영국풍의 거리를 거닐며 태즈메이니아의 한가로움과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와인처럼 달콤한 시간을 감각하다

태즈메이니아 여행이 즐거운 또 다른 큰 이유는 최고의 와인이 있기 때문이다. 론세스턴 주변을 흐르는 파이퍼스 강을 따라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 30여 곳이 몰려 있다. 이 구역을 타마르 와인 밸리라고 부른다. 타마르 밸리의 구르와 언덕은 연중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최고급 와인을 생산해낸다.

타마르 강 서쪽을 따라 타마르 하이웨이(A7)가 뻗어 있는데, 와이너리들은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타마르 와인 밸리 와인 루트'라는 이정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찾아가기 편하다. 타마르 밸리 와이너리에 대한 정보는 타마르 계곡 와인 루트 홈페이지([www.tamarvalleywineroute.com.au](http://www.tamarvalleywineroute.com.au))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타마르 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드라이브 삼아 여행하는 것도 괜찮을 듯. **WIN CLASS**



## 태즈메이니아 캠핑 길라잡이



### 캠퍼밴 빌리기

태즈메이니아의 공항에는 렌터카 업체들이 모여 데스크를 열고 있다. 미리 예약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 도착해서 업체에 문의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캠핑카 대여 업체

AutoRent-Herts : 1800-030-222, 03-6237-1111 / [www.autorent.com.au](http://www.autorent.com.au)  
Avis : 13-63-33, 0306234-4222 / [www.avis.com.au](http://www.avis.com.au)



### 캠핑장 선택하기

캠퍼밴을 이용한다면 카파반 파크라고 불리는 시설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2인 기준 1박에 20~30 달러 정도에 이용이 가능하다. 전기 시설, 세탁실, 샤워실, 공동 부엌 등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 추천 캠핑장

트레저 아일랜드 카라반 파크 : 호바트 시내에서 20분 거리. 공용 부엌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완벽했다. 호바트 시내 관광을 위한 최적의 캠핑장이다. 03-6249-2379



### 일정짜기

태즈메이니아 항구도시 호바트를 중심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동부 해안을 따라 올라가며 태즈메이니아를 거쳐 론세스턴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이 가장 무난하다.

태즈메이니아의 위대한 자연과 한적한 전원 마을 등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호바트로 들어가 론세스턴으로 나오거나 론세스턴으로 들어가 호바트로 나온다. 태즈메이니아에서는 렌터카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가 달라 캠핑카 반납 장소가 달라져도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다.





# 강연의 시대, 무엇이 말의 힘을 깨웠나

## 이유 있는 강연 프로그램

이른바 강연의 시대라고 해도 될 법하다.  
강연을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기 등장하는 스타 강연자들의 책들은 출판가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형식과 소재도 다양해진 강연들.  
무엇이 강연의 시대를 열었을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 방송가를 장악한 강연 프로그램들

JTBC <말하는 대로>는 길거리에서 '강연 버스킹'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처음 이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큰 기대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어수선한 시국으로 인해 프로그램은 갈수록 화제를 모으고 있고, 실제로 출연자들의 면면도 다채로워졌다. 우리에게 60억 원이 넘는 빛을 진 가수 겸 제작자로 알려진 이상민 같은 연예인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정치인들, 유병재 같은 스타 작가이자 방송인이나 광정은 같은 칼럼니스트, 조승연 같은 작가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그날의 강연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4%에 육박하는 시청률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MBC <무한도전>의 역사 강의를 통해 주목받은 설민석 강사는 tvN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



### 다채로워진 강연, 지식 셀러브리티의 탄생

'어쩌다 반 고정'이 되어버렸다. 사실 <어쩌다 어른>은 중년이지만 여전히 청춘인 세대들을 겨냥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강연 프로그램으로 색깔을 바꾸었다. 이 프로그램은 최진기, 설민석 같은 강사들은 물론이고 조승연, 양재진, 허태균 교수 등을 연달아 스타강사로 배출했다. KBS <강연 100℃>는 본격 강연 프로그램으로 전형적인 강연 형식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껴안았다. 교양 프로그램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 다른 강연 프로그램보다는 낫게 보이지만 대신 공영 방송답게 교수에서부터 일반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군들을 연단에 세워 다채로운 강연의 맛을 선사하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 강연 프로그램들이 이토록 많아진 데는 실제로 강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반영한다. 물론 최근 들어 경기가 위축되면서 강연시장도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스타 강사들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는 많다. 이들은 대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공무원 교육, 백화점 같은 곳에서 열리는 고객 서비스 차원의 강연 등등 다양한 연단에서 활동한다. 방송은 그 중 입소문이 난 강사들을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출판시장에서도 단연 1순위 섭외대상이 되고 있다. 방송과 강연은 최근 들어 점점 위축된 출판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강연은 방송의 좋은 소재였다. 주로 아침방송에서 연사를 모셔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들이 괜찮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연 방식이 교양적인 틀에서 벗어나 예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강연 소재도 과거 철학이나 자기계발 등에 집중되던 것에서 역사, 심리, 하다못해 실용적인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방송이 스타 강사들을 강연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른바 '지식 셀러브리티'가 하나의 방송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설민석, 채사장, 최진기, 송길영 같은 강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에서조차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는 환경에 의해 방송에서 소비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중적인 인지도는 강연시장의 부름을 받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 강연, 무엇이 말의 힘을 깨웠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강연의 시대', 말의 힘을 깨운 건 무엇이였을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건 '불안감'이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져가고, 삶의 현실도 점점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중들의 불안감은 무언가 기댈 것을 찾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같은 이유다. 그저 눈앞의 현실에 대처하는 처세가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대중들은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결국 강연이란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무질서한 상황들에 특정한 맥락을 주고 논리로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그것이 누구에게나 진리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강연자가 드러내주는 하나의 맥락은 적어도 많은 이들에게 무언가 기댈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강연자들은 그것들 사이에 금을 그어 하나의 별자리를 보여줌으로써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어쩌면 강연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가치일 것이다. 하지만 때론 일시적인 위안이나 불안을 떨쳐주는 말이란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는 공허한 일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른바 '고구마' 시국으로 인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갈증을 풀어주는 '사이다 강연'에 대한 갈증은 더 커졌다. 강연을 찾는 대중들의 발길이 이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삶과 현실의 문제는 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한 저마다의 삶의 맥락 역시 각자 찾아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강연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사이다는 시원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더욱 갈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WIN CLASS



## 봄날에 윙조리는 '멜로디'데이

새로운 멜로디로 봄을 꽃피울 '멜로디데이'가 돌아왔다. 지난 1월 발표한 '바빠 보여요'로 바쁜 청년들의 삶을 대변했던 멜로디데이가 두 번째 미니 앨범 'KISS ON THE LIPS'에서는 매력적인 빛을 띠는 한 송이 'Sensual Flower'로 변신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높은 비약을 준비하고 있는 멜로디데이의 예인(23)을 만났다.

글. 편집부



### 봄날에 흥얼거리는 멜로디

거리에 가득했던 겨울의 한기가 잦아들고 싱그러운 봄날의 따스함이 그 자리를 메운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햇살을 놓치기 아쉬운지 많은 사람들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멜로디를 흥얼거린다. 봄이라는 계절은 스쳐간 멜로디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멜로디를 윙조리게 한다.

어떤 멜로디든 본인의 색깔로 탈바꿈하는 멜로디데이가 두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했다. 타이틀곡 'KISS ON THE LIPS'는 '레게팝' 장르의 곡으로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며 'MIX & MATCH'는 펑키 리듬의 기타 루프가 인상적이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노래는 '흔한 멜로디'이다. 멜로디데이 멤버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이 곡은 뮤지션으로서의 멜로디데이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멜로디데이 예인(23)이 있다.

###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타고난 목소리

멜로디데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예인의 목소리는 어딘가 친근하다. 친근하지만 새롭고 새롭기에 신비스럽다. 매력적인 그녀의 보컬은 봄날과 어울리며 노래를 들어본 누구나 한번은 흥얼거리게 만든다. 비결은 무엇일까. 목소리에 관한 많은 것을 부모님께 배웠다는 예인에게 조심스레 부모님에 관해 물었다. 밝은 미소로 그녀는 두 분 모두 성우라고 답했다.

예인의 어머니 정미연 씨는 1985년 MBC 공채 성우 10기로 경력을 시작해 다양한 작품에서 여러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2년 전에는 성우협회에서 주는 30년 개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인의 아버지는 SBS 프로그램 'TV동물농장'의 워트 넘치는 해설로 시청자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고 있는 성우 안지환 씨다. 타

고난 목소리에 지칠지 모르는 노력이 덧붙여 지금의 목소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 뮤지션으로서의 꿈을 향해 나아가다

예인의 가족은 IBK기업은행 WM 사업부와 인연이 깊다. 예인이 어릴 적부터 이어온 IBK기업은행과의 관계는 예인이 20살 성인이 되고 뮤지션으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예인에게는 사회의 모든 것이 궁금증의 대상이다. 특히 그녀는 재테크에 많은 호기심을 보였다.

IBK기업은행 WM사업부는 그녀의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을 조언했다. 그 첫 번째가 '일일 지출 한도 정하기'이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일 년이 되고 그것들이 통장 잔고를 결정하게 되는 법이다. 일일 지출 한도를 정하면 의식적으로 지출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다. 어렵지 않게 하루 동안 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하루 동안 지출액을 조절할 수 있다. 다음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노트에 가계부를 작성하는 시대는 지났다. 스마트폰 어플에는 수많은 가계부 어플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다. 지출 기록을 토대로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조언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메모하는 예인.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또래 친구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다.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 명의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예인. 그녀의 바람만큼이나 끝나지 않을 멜로디를 윙조리는 뮤지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WIN CLASS

### 멜로디데이 Profile



차희, 여은, 예인, 유민 4명의 멤버로 구성  
 The 2nd Mini <KISS ON THE LIPS>(2017.02.15)  
 The 3rd Digital Single <바빠 보여요> feat. 정일훈 of 비투비(2017.01.25)  
 The 1st Mini <COLOR>(2016.07.01)  
 The 2nd Digital Single <비가 내리면> feat. 라비 of 빅스(2015.12.28)  
 The 3rd Single <Speed Up>(2015.10.07)  
 The 2nd Single <#LoveMe>(2015.06.09)  
 The 1st Digital Single <겁나> with 매드클라운(2014.12.12)  
 Debut Single <어떤 안녕>(2014.02.25)





## 기본기의 중요성

첫 단추를 잘 잠그면 옷 매무새가 잘 다듬어지듯  
어떤 일이든 시작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리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기본기를 잘 잡아야 한다. 어떤 아마추어들은  
기본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스윙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기를 잘 잡아야 스윙 또한 좋아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기본기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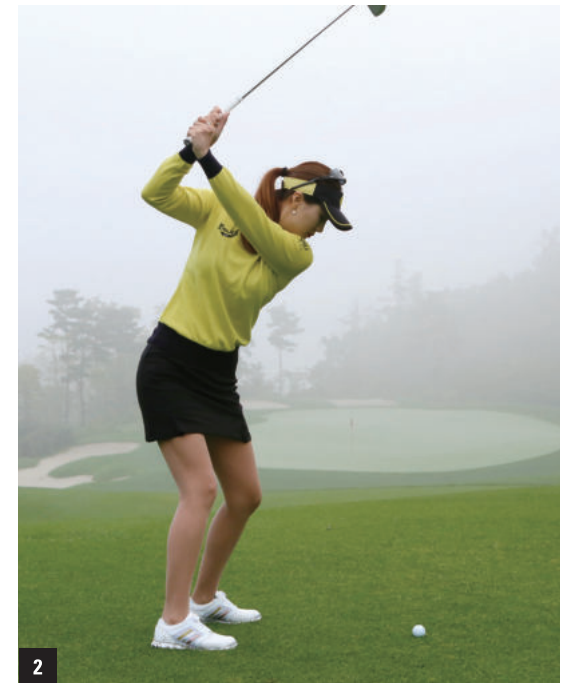
글. 김도하 프로골퍼 사진. 조도현



### 김도하 프로골퍼

2012년 서울시장배 골프 단체전 우승  
2012년 세미프로 테스트 합격  
2014년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9위  
2015년 킹스데일GC 점프투어 시드전 1위  
현재 스포월드 소속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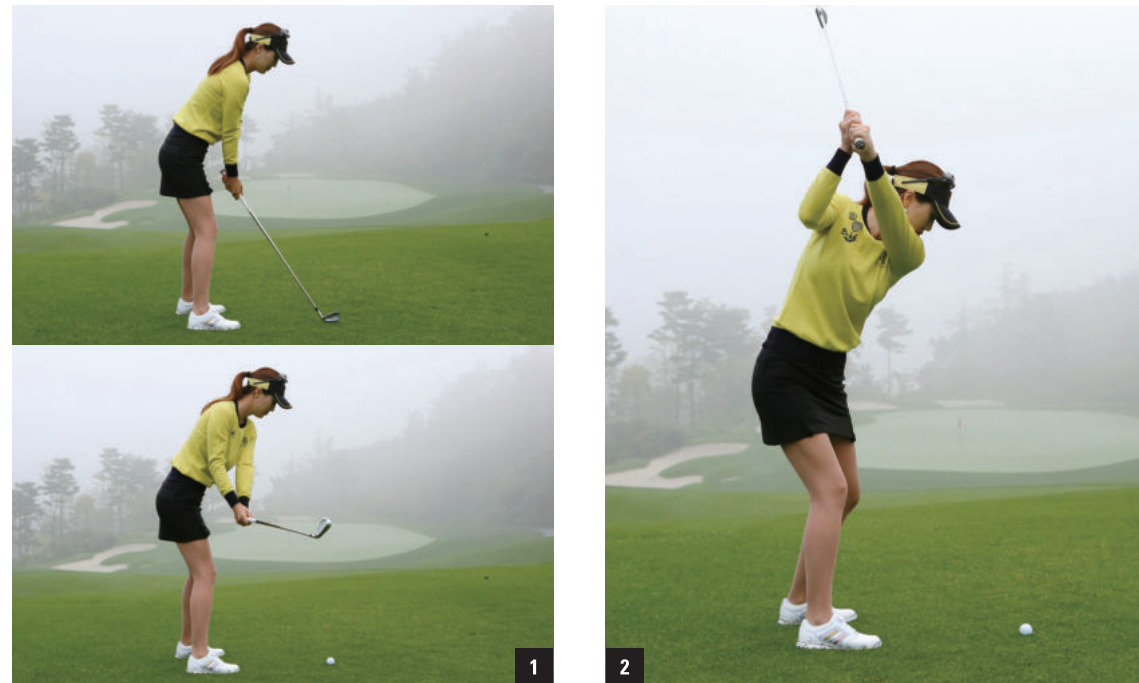
## 인에서 아웃 스윙이 만들어질 경우



1. 스탠스를 취할 때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으면, 테이크백은 뒤로 빠지게 된다.
2. 모든 스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크 백이 뒤로 빠지면 톱에서는 샤프트가 세워져 헤드 가 머리 쪽으로 가게 된다.
3. 머리 쪽으로 이동할 경우 인에서 아웃 스윙이 만들어지게 된다.



## 아웃에서 인 스윙이 만들어질 경우



1. 오른발이 위에 위치할 때, 테이크백은 바깥으로 올라간다.
2. 바깥으로 올라가면 샤프트가 쳐져 톱은 업라이트하면서도 헤드가 쳐진다.
3. 헤드가 쳐지기 때문에 아웃에서 인(엷어 치는) 스윙이 만들어지게 된다.

## 골반

어드레스도 골반이 닫혀 있으면 테이크백은 뒤로 빠지게 된다. 다운스윙 때 골반이 막혀있기 때문에 인에서 아웃 궤도로 돌아오게 된다. 골반이 열려 있으면 테이크백은 바깥으로 올라가게 되고 골반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웃에서 인 궤도로 들어오게 된다.



## 어깨

어깨 또한 똑같다. 열려 있으면 백스윙 때 테이크백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닫혀 있으면 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뒤로 올라가면서 인에서 아웃 스윙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어드레스만 조금 잘못 잡아도 스윙에 오류가 생긴다. 골프도 단추와 같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의 같다. 스윙이 좋고 골프를 잘치고 싶다면 스윙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본기에 더 신경을 써라. 기본기가 좋으면 다음부터는 술술 풀리기 마련이다.



# 따스한 봄날에 읽는 문장들

누군가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어찌 독서에 계절을 따질 수 있을까요.  
따스한 봄날에 어울리는 세 권의 책을 살펴봤습니다. 두 권의 수필집과 한 권의 평론집.  
그 안에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사진. 마음산책 제공



## 정확한 사랑의 실험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3년 만에 선보인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2년간 <씨네21>에 발표했던 '신형철의 스토리-텔링' 연재 글 19편과, 2011년 웹진 '민연'에 발표했던 글 2편, 2013년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에 발표했던 글 1편을 묶어 27편 영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문학비평으로 두꺼운 팬층을 확보한 신형철은 <씨네21> 연재 당시 이런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영화라는 매체의 문법을 잘 모르는 내가 감히 영화평론을 쓸 수는 없다. 영화를 일종의 활동서사로 간주하고, 문학평론가로서 물을 수 있는 것만 겨우 물어보려 한다.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하고” 그가 쓰는 영화평론은 결국 ‘좋은 이야기’에 대한 글이며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비밀에 대한 글이기도 하다.



## 모든 게 노래

『모든 게 노래』는 소설가 김중혁이 모노톤 일상을 밝고 입체적인 빛으로 채색해준, 음악과 뮤지션이라는 고마운 동반자를 기리는 산문집이다. 김정미, 김추자의 옛 가요부터 씨니힐의 최신 가요까지, 페퍼톤스 같은 인디 음악부터 가인 같은 대중음악까지, 그리고 비틀스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 키크스, 팻 메스니에 이르는 ‘색깔 있는’ 곡들까지, 30년이 넘는 그의 음악 편력이 48개 곡지에서 웃기고 유쾌하며 애뜻한 일화들로 무게있게 피어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장으로 묶인 일화들은 때로는 소설가 김중혁의 감성을 완성해준 뮤지션들에 대한 오마주이고, 때로는 고뇌하는 청춘에 대한 위로이며, 때로는 소중한 일상에 바치는 연가다. 계절의 변화와 흐름에 초조해하기보다는 당차게 시간을 마주하고 즐기는 “마법”을 독자와 공유한다.



## 청춘의 문장들

소설 쓰기와 함께 마라톤에도 열심인 것으로 알려진 김연수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 나가는 작가이다. 그런 김연수에게 이 첫번째이자 마지막(작가의 말에 따르면) 산문집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문에서 그는 “내가 사랑한 시절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 안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진 것들, 지금 내게서 빠져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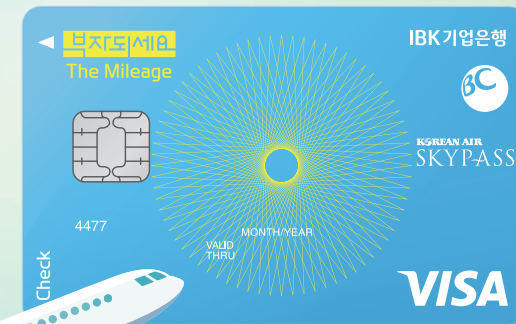
김연수는 이미 지나온 안팎의 풍경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거리 주자인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풍경들을 되새기는 이유는 다시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함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책을 쓰는 일은 없을 테니까” 라는 말 속에는 지나온 반성에 대한 결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총 32편의 산문 중 절반 이상이 새로 쓴 전작 산문이다. WIN CLASS

## 부지되세요 The Mileage

현명하게 선택하고 당당하게 사용하는 당신  
BC카드와 함께라면 당신은 이미 부지됩니다.  
\*BC 부지되세요, 카드

# 부지되세요 더 마일리지

### 연회비 없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5개 온라인몰 할인까지 되는 체크카드!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

- 5개 온라인몰 : 1,000원 당 1마일
- 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 ※ 건당 3만원 이상 이용건 월 할산 100만원까지 적립
- 5개 온라인몰 제외 국내 가맹점 : 3,000원 당 1마일
- ※ 건당 3만원 이상 이용건 월 할산 100만원까지 적립

## 온라인몰 할인 서비스 🛍️

- 5개 온라인몰 5% 할인
- 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 ※ 온라인몰별 월1회

## 생활 할인 서비스 🎡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2천원 할인
- ※ 통합 월1회
- 놀이공원 무료입장 또는 입장권 50% 할인
- ※ 통합 월1회, 연2회

## 발급안내

-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 발급구분 : 체크 · 발급브랜드 : VISA(국내외겸용) · 연회비 : 면제 · 교통 : 비교통, 후불교통
- ※ 이 안내장은 요약된 것으로 서비스 제공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IBK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1504호(2016.05.20) CP078 게시기한 : 2017.05.19

이 안내문은 2016.05.20일 현재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6.05.24)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상태,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내용 등을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 개별고지 방법 :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하나, 2개 이상 복수 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정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관: 국번없이 ☎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금융감독관: 국번없이 ☎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통,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저 연 16.5% ~ 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